01 교회소식

열매 맺는 성결의 복음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추수감사절, 이스라엘에 뿌려진 성결의 복음이 열매 맺는 현장을 확인한 선교 출장 소식.

02 생명의 말씀

자비의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시리즈 설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주님을 닮은 자비의 마음을 이루길 원하신다.

03 기획특집

"충성으로 심으니 감사가 넘칩니다"

교회 각 분야에서 헌신하는 주님의 몸 된 지체들이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전한다.

04 간증

감사가 무르익은 추수감사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며 기쁘게 충성했더니 삶 가운데 응답과 축복이 넘친다는 성도들의 감사의 고백.

만민뉴스

제712호 2015년 11월 15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이스라엘 목회자 세미나 및 권능의 손수건 집회

1

2

3

4

5

6

7

8

9

10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 집회 시 강사 이수진 목사(사진 1)가 전체를 위해 기도해 주자 많은 사람이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아 간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며(사진 2, 3, 6), 주최측인 크리스탈포럼에서는 이수진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사진 4). 이스라엘 목회자들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지핀 목회자 세미나(사진 5, 7, 10)와 각 집회 시 공연으로 영광 돌린 예능위원회 부위원장 한주경 찬양선교사와 글로리워십팀(사진 8, 9),

지난 10월 29일(목), 이스라엘 키부츠 호텔 '키부츠 쉬파임' 강당에서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 주최로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는 이스라엘, 러시아, 핀란드, 영국 등에서 많은 목회자가 참석하였다.

이날 강사인 이수진 목사(교역자회 회장)는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죄에 대하여 설명하며 성결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도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전했다.

"목회자들이 죄를 버리고 성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성도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고 교회가 부흥하며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세미나 후 목회자들은 "너무도 필요한 말씀이었다. 마음에 영적 치유를 받는 시간이었다.", "성결의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다. 성결된 능력의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였다. 또한 "당회장 이재록 박사님은 우리가 만난 최고의 스승이며 영적인 아버지이다."라고 하였다. 러시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예수교러시아연합성결회 총회장)는 "성결의 복음이 죄로 관영한 이 시대에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다."라며 감사해 하였다.

10월 30일(금)에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손수건 집회(행 19:11~12)가 열려 '키부츠 쉬파임' 대강당을 성도들로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되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한 권능의 역사가 담긴 '권능'(The Power of God) 비디오가 상영되는 가운데 각종 질병을 치료받은 성도들의 간증이 나올 때 환호의 박수가 터져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어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부위원장 한주경 찬양선교사와 글로리워십팀의 공연이 있었다. 히브리어, 러시아어, 영어 등 다국어 찬양과 충만한 이스라엘 전통 무용으로 진행되어 "환상적인 무용과 충만한 찬양에 은혜와 감동이 넘쳤다."는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회중 찬양 시에는 많은 이가 눈물을 흘리며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였다.

강사 이수진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를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전하였다. 이어 환자기도가 마쳐지자 많은 사람이 간증을 하기 위해 단 위로 올라왔다.

각종 암이 치료되고 관절염, 허리 통증 등이 사라져 잘 걷게 되고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되었으며, 간질, 자폐증, 다운증후군도 호전되는 등 권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10월 31일(토)에는 예루살렘 '영광의 왕 교회' 새성전 입당예배가 있었으며, 이수진 목사는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전했다.

한편, 10월 28일(수)에는 크리스탈포럼 창립 7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2007년 7월부터 시작된 이재록 목사의 이스라엘 선교 사역을 통해 영적 담대함을 얻은 이스라엘 목회자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크리스탈포럼은 매년 손수건 집회와 목회자 세미나, 찬양 페스티벌, 청소년 캠프, 부부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역을 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09년 9월에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이후 크리스탈포럼 소속 목회자들은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등 영향력 있는 단체로 성장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선포한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는 전 세계 220여 개국으로 송출되었으며, 가뭄 중에 큰 비가 내리고 신종플루의 확산이 멈추는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께 더욱 크게 영광 돌렸다.

자비의 열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하나인 자비의 열매를 맺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선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습니다.

설령 큰 허물이 있거나 중한 죄가 드러났어도 판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앞섭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어찌하든 상대를 이해하며 살리고자 하지요. 이러한 자비의 열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자비의 열매란?

사전에 자비(慈悲)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단순히 상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능히 이해하는 마음'이지요. 또한 '사람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능히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자비의 마음으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였지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공의대로만 판결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이해하시기 위해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자비의 마음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2. 자비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특징

첫째, 편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외모만을 보고 판단, 정죄하거나 마음 자세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편견없이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약 2:1~4).

혹여 자신은 부나 명예, 외모 등 육적인 면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해도 영적인 면에서 편견이 없는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깨달음이 둔하여 분위기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이나 주의 교양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을 볼 때 무시하거나 멀리하는 마음은 없었는지요?

어떤 사람은 범죄하여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마치 자신이 재판관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상대를 정죄하고 수군수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이 끌려 왔을 때에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며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요 8:3~11).

이처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며 그가 힘을 내어 잘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즐겨 구제합니다.

자비의 마음이 진실하면 물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향하여 말로만 위로하지 않고 어찌하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야고보서 2장 15~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만일 상대가 굶고 있다면 '나도 한 끼 먹을 양식뿐이니 어쩔 수 없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을 것이라도 나눠 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어떤 문제로든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도움이 되기 원하고 고통을 덜어 주기 원하는 것이 자비의 마음이지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아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셋째, 상대를 함부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징계나 책망, 지적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 지적을 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하지요(잠 12:18).

어떤 일꾼은 자기 의와 틀 속에 쉽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해도 사랑이 없이 할 때는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상대가 지적받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칼에 찔리듯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낙심하여 힘을 잃을 수 있지요.

그러니 어린 소자를 대할 때도 찌르거나 허물을 들춰내어 상처를 주거나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필히 권면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으로 할 때 상대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사람에게 관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너그러이 대해 줍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상대를 위해 내어 줄 때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셨지요. 이처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능히 용서하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내가 싫은 사람이나 성격과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다 해도 상대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느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럴까? 이해할 수 없다.'고만 생각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감정이 생기고 상대를 대할 때도 불편한 느낌이 들지요.

그러나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면 싫은 느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와 틀을 버리고 생각과 느낌을 선하게 바꾸어 나갈 때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이나 악한 감정들이 하나하나 뽑혀 나가므로 누구라도 품고 선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대에게 공(功)을 돌립니다.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잘한 일은 상대의 공으로 돌리고, 반대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자신의 허물로 돌립니다. 내가 더 잘했는데 상대만 칭찬받는다 해도 내 일처럼 기뻐합니다. '사실은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이런 결점이 있는데 칭찬하시네.' 하는 생각으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분이 칭찬을 받았으니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힘을 내서 더 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감사할 수 있지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자녀가 상을 받았다면 "왜 나에게는 상을 주지 않고 자녀에게만 상을 주나요?" 하며 어머니 편에서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의 열매가 맺히면 누구라도 나보다 상대를 앞세울 수 있고 그에게 공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비만이 아니라 다른 성령의 열매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분류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결국 온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이뤄 온전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영을 낳으며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 날마다 축복의 간증이 넘치며,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월/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253-985877
(예금주 이경진)

"주의 일을 하면 감사의 조건이 넘칩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교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충성하는 일꾼들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 본다.

최영규 집사
(50세, 만민봉사대)

"**교통 봉사**의 기쁨으로 **주일**이 더욱 행복합니다"

2003년 9월, 교통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에 은혜를 받아 저도 만민봉사대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교회 차량과 외부 차량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어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며 저는 주일이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건설회사에서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기에 지방으로 발령받을 때도 있었지만, 제가 맡은 봉사 위치를 꼭 지키고 싶어서 주말이면 지방에서 올라와 봉사대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처럼 봉사대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을 주셨지요.

아들 최성혁 형제는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하면서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교회에서 기관장과 안전 봉사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딸 최현지 자매는 예능위원회 소속 '아향선교단'에서 무용으로, 아내 이은하 권사는 교구 조장으로 온 가족이 충성하고 있지요.

또한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손가락이 골절되었으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신속히 치료되는 체험도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봉사의 기쁨을 주시고 온 가족이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임연화 권사
(47세, 학생주일학교 주교사, 오른쪽에서 세번째)

"**주교사** 사명을 통해 **목자의 마음**을 느낍니다"

지인의 전도로 우리 교회에 인도받아 첫날부터 은혜를 듬뿍 받았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어 극심한 축농증을 치료받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참 좋아해서 학생주일학교에서 10년 넘게 주교사로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정성을 쏟는 만큼 학생들이 행복해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며 학생들과 함께 제 안에 믿음도 사랑도 성숙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춘기라 반항도 하고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던 학생들이 어느덧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볼 때 흐뭇하기도 하고 영혼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목자의 마음도 이러시겠구나 싶어 감사하게 되지요.

공과시간을 통해 솔직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대하니 학생들도 마음을 열고 친구처럼 엄마처럼 편하게 대화를 합니다. 이 사명이 영혼을 살리는 일임을 알기에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에 오기 전에는 허약하고 이기적이며 자존감도 부족했던 저였는데, 당회장님의 가르침을 통해 강건해졌고 사랑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니 행복합니다. 이러한 행복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춘현 권사
(56세, 기도제물연합회)

"**기도**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 우리 교회 금요철야예배에 참석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뒤, 저는 기도제물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제물연합회는 매일 다니엘철야 기도회 외에도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루 6시간 이상 기도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관이지요.

저는 전 세계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쌓는 보람을 느끼며 기쁘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제물 기도회에 참석하여 당회장님의 사역과 세계 선교, 성전 건축 등을 위한 기도를 마치면 합심기도를 부탁하신 성도님들의 다양한 기도제목을 위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응답받았다는 간증을 들을 때면 이 사명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지요.

만민기도원 환자집회 시 환자들의 기도를 도와줄 때도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다 보면 환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통회자복을 하게 되지요. 귀한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CHANGE & LIFE
GUIDANCE ON PROGRAM
GLOBAL CHRISTIAN NETWORK
NOVEMBER 2015

GCN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5/11/15~11/21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사랑장 11~15 - 권능
- 지옥 2~6 - 나의 믿음은
- 일곱교회 5~9
- 창세기 강해 51~55
- 요한계시록 강해 95
- 공부잘하는 비결 1~5
- 위로부터 난 지혜 1~5

GCN TV설교
- 내가 시행하리니 1 [이수진 목사]
- 지혜 2 [이미영 목사]
- 생명과 평안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48 [이희선 목사]
- 욥기 강해 16 [신동초 목사]
- 열재앙 17 [정구영 목사]
- 양선 [김수정 목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46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2
- 창조와 과학 17 - English 5
- 내 마음의 찬양 21 - 옛날 옛적에 11
- 모두 드려요 38 - 즐거운 요리 26

해외성회 및 교육
- 러시아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어온 길 16
- 회상 [시즌2] 6

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

고쌍녀 권사 (76세, 성례부)

"성찬식을 정성껏 준비하며 주님의 사랑을 되새겨 봅니다"

저는 20년 동안 성례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례부는 성찬식에 필요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8월에 좋은 포도를 사서 일일이 마른 수건으로 깨끗이 닦은 후 포도주를 담그지요.

매년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찬식 때 사용할 포도주를 절기별로 구분하여 항아리에 따로 담아놓습니다. 성찬식이 있는 주간에는 금요일부터 성례부원들이 포도주를 걸러내고, 용기들을 씻고 닦아 지성전에도 보내드립니다. 당일 주일 아침에는 떡으로 사용할 빵을 썰어 담아놓고, 성찬식 후에는 각성전과 지성전에서 용기들을 수거하여 깨끗이 씻고 제자리에 배치해 놓지요.

이렇게 마무리하기까지 손이 많이 가지만, 저는 귀한 제단에서 성찬식을 준비한다는 생각에 봉사를 할 때마다 힘이 주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던 올해 8월, 만민 하계수련회를 앞두고 며칠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아파 잘 걷지를 못하였습니다. 수련회에 다리를 절면서 참석하였는데, 첫날 도착예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 주셔서 감사의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 뒤로 다리의 통증이 사라져 아무 이상 없이 잘 걸을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박진희 집사
(51세, 미화부, 아랫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아름다운 꽃들처럼 향기를 내는 주님의 신부가 되렵니다"

2002년, 우연히 동승한 차 안에서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만민중앙교회를 찾아왔는데,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 눈물을 흘리며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그 뒤 교회에 등록하였고, 4년 전부터는 미화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미화부는 강단 헌화가 있을 때나 교회 창립, 크리스마스 등 교회 행사 시 본당 외에도 2성전, 새교우환영실 등 곳곳에서 꽃꽂이를 합니다.

꽃을 좋아해서 미화부원이 되었지만, 막상 해보니 제가 생각한 대로 고상하게 꽃꽂이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분들과 물에 잠긴 오아시스 등 무거운 물건도 들어야 하고 힘쓸 일도 많았지요. 그동안 10년, 20년 넘게 봉사해 온 분들의 노고도 새삼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화부 봉사를 하면서 저는 영육 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꽃꽂이 작품을 준비할 때마다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지고 사랑과 믿음이 더해졌지요.

올해 5월 말에는 왼쪽 겨드랑이와 왼쪽 허벅지에 붉은 발진이 일어나면서 칼로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대상포진이었지요.

6월 5일, 저는 믿음으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악수하였는데 마음에 기쁨이 임하면서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뒤 대상포진이 치료되었지요. 할렐루야!

제가 운영하는 과일 가게도 손님이 많아져 2호점을 오픈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늘 좋은 것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진교철 집사 (48세, 샬롬성가대)

"성가를 부르며 마음껏 감사의 향을 올려 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성가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찬양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1997년 3월, 형님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출석한 뒤의 일입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그해 11월에 샬롬성가대 대원이 된 후에야 비로소 성가를 부르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이 실려지니 감동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제 삶에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2003년 11월, 축구를 하던 중 발목뼈를 다쳐 즉시 휴대폰으로 당회장님의 ARS(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02-830-5320)를 받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발목이 붓고 색깔이 거무스름하게 변하였지요. 엑스레이 촬영 결과, 외측 복사의 분쇄골절이었으며, 의사는 나사나 심을 박아 뼈를 고정하고 재활치료까지 해야 한다며 12주 이상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후 9일째부터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지요. 그 뒤 엑스레이 촬영 결과, 분쇄 골절된 부위가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딸 하늘이는 아토피성 피부염이 심각하였는데 당회장님의 기도로 치료받았고, 아내 탁성라 권사는 지름이 5cm나 되는 유방농양으로 통증이 심하였으나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는 순간, 온몸에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치료받았지요. 이처럼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치료하시며 축복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치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2층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